

# 광양시, 친환경 2차전지 재활용 실증센터 속도 낸다

### 내년도 국비 20억원 확보 차세대 먹거리 산업 육성

### 2024년까지 명당 3산단에 조성

광양시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광양시는 내년도 국가 예산에 친환경 2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20억원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33억원을 투입해 명당 3산단에 추진한다.

EV(전기자동차)·ESS(에너지저장시스템) 폐배터리 팩 및 모듈 자동화 해체분리 장비 구축, 친환경 재활용 공정 표준-인증 및 재활용 소재 성능평

가 기반 등을 구축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은 2025년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122억 달러(약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리튬 2차전지 재활용은 표준화된 평가나 재활용 기준이 없어 재활용하려는 기업이나 연구소들은 현재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시는 중·장기적으로 리튬 2차전지 재활용관

련 글로벌 학회와 세미나를 유치해 리튬 2차전지 양극재 기술 개발·실증·친환경 재활용 기술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나주의 EV, ESS 재사용 센터와 연계해 국내 최초 재사용-재활용을 일원화하는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향후 리튬 2차전지의 시장 성장성과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경우 2030년까지 100개 기업 유치와 지역 내 1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차전지 재활용 기술은 기초단계로 '친환경 2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광양의 미래를 여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나주천 인접공사 통합발주' 적극행정 '대상'

### 전남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 고흥군 '지방세 직권 과세' 최우수상

나주시가 시행한 '나주천 인접공사 통합발주'가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을 차지했다. 고흥군의 '지방세 신고없는 직권 과세'는 최우수상에 뽑혔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0 혁신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지역민의 편익을 증진한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에서 시·군 부문 '대상'은 나주시가 차지했다.

나주시는 '나주천 인접공사 통합발주'를 통해 공사비 절감은 물론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나주천 공사 통합발주는 주변 2개 부처 3개 사업을 묶어 발주함으로써 110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불분명한 하자 발생을 해소하는 한편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주천 관련 사업은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 (278억원), '나주천 풍수해 생



나주시의 '나주천 인접공사 3개 통합 발주' 사례가 전남도 적극행정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열린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계획 용역 보고회. <나주시 제공>

활권 종합정비' (319억원), '나주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차집관로정비' (174억원) 등 3건이다.

고흥군의 '지방세(취득) 신고없이 스마트(Smart)하게 과세하고, 군민에게 간산세 부담 덜어주고(Go) 사례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밖에 보성군 '코로나19시대 새로운 소문탕구로

군민과 정책을 잇다', 목포시 '남만항구가 달라졌다-남향 유희부처 사계절 꽃정원 대변신으로 웃음꽃 만발', 완도군 '전국 최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해상 확대 시범운영' 등이 적극행정 우수상에 선정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씨월드고속웨리 이혁영 회장, 목포시에 위문품 전달

씨월드고속웨리(주) 이혁영 회장은 지난 8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목포시 공직자들을 격려하고자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전달한 위문품은 빵 1000개와 우유 1000개다.

이 회장은 "목포지역이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

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의 노력 때문"이라며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8월에도 목포시 공직자들을 위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폐광지역행정협, 광업공단법 반대 서명서 국회 전달

### 구충곤 회장 "통합때 생존권 위협"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 촉구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과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가 함께 했다. 국회에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한국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양 기관 통합에 반대하는 폐광지역 생존권 사수 서명운동을 펼쳐 그동안 5만911명이 참여했다.

협의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정부에서 폐광지역 지원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라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부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 촉구 서명서'를 전달했다. <화순군 제공>

공기업 구제를 위해 42만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완전 자본잠식이 이뤄져 부채가 6조4000억(2019년 기준)에 달한다. 양 기

관이 통합할 경우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부실은 물론 또 하나의 부실 공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광역 원예채소 출하조절센터' 해남에 들어선다

### 건립비 100억 확보 2022년 완공 저장고·예냉시설 갖춰 수급 조절

해남군에 전남지역 원예채소 출하조절센터가 건립된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채소류 출하조절 지원사업인 '원예채소 출하 조절센터'를 해남군 등 2곳에 건립하기로 했다.

해남군에 건립되는 센터는 전남 광역 원예채소를 수급 조절하는 곳으로 건립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2년까지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을 갖춘다.

광역단위 수급 조절이 가능한 출하조절센터 건립은 전남권에서는 처음이다.

원예채소 출하 조절센터는 생산·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을 통해 유통기

간을 연장해 적정 수급을 통한 가격안정을 돕게 된다.

출하조절센터가 들어서면 저장성이 없는 배추, 양파 등 노지채소류의 수급 조절은 물론 1회 최대 2천t의 물량을 비축하는 전남 서부권의 정부 원료 비축기지로서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겨울배추 최대 주산지이자 노지채소 면적이 가장 많은 지자체다.

해남군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배추 등 노지채소류 산지 폐기 등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대규모 출하조절 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건의해 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광역단위 원예채소센터는 전남권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채소류 산지폐기 등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신규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